

[보도자료] 쿠팡, 쿠팡맨 배송편의 위해 오토매틱 트럭 도입

2018. 8. 6.



- 9월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총 500대 현장 투입
- 운전 피로도 줄이고 배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
- 쿠팡맨 채용 기준, 1종 보통면허에서 2종 오토면허 소지자까지 확대

2018. 8. 6. 서울 — 이커머스 리딩기업 쿠팡(www.coupang.com, 대표 김범석)은 쿠팡맨들의 배송편의를 위해 오토매틱 기어가 장착된 배송트럭 도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쿠팡맨들이 배송 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1톤 소형 화물차다. 이번 차량 추가 매입은 쿠팡맨 업무에서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쿠팡맨들에게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 배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수동변속 차량은 조작이 불편하지만 오토매틱 기어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이점이 있어 배송트럭의 경우 수동변속 차량을 많이 사용한다. 쿠팡은 오토매틱 기어 차량이 수동기어 차량에 비해 평균 100만원 가량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쿠팡맨들의 배송편의를 향상시켜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차량 도입을 결정했다.

쿠팡은 순차적으로 9월까지 오토매틱 트럭 500대 가량을 전국 캠프에 보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 차량 구입 시 오토매틱 기어 트럭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오토매틱기어 차량으로 배송트럭이 변경됨에 따라 쿠팡맨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과거 수동기어 차량 운전이 가능한 1종, 2종 수동 운전면허 소지자만 쿠팡맨 지원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2종 오토 운전면허 소지자도 쿠팡맨에 지원할 수 있다.

서초 캠프 이효상 쿠팡맨은 “업무 시간 중 운전이 소요하는 시간이 많은데, 오토매틱 차량 도입으로 한결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배송에 집중해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배송담당 직원인 쿠팡맨의 채용을 전국단위로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인크루트 등 잡포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다.